

멕시코 이주 서사에 나타난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정 하 닌**

요약

이 논문은 멕시코 이주 서사에 나타난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상화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20세기 초, 천혜의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와 소문을 접한 많은 조선인들은 멕시코 농장으로 이주 노동을 떠났다. 그런데 천혜의 환경이었던 것과 달리 멕시코는 뜨거운 별판이었고 광고처럼 문명국도 아니어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인데도 노예처럼 대했다. 본고에서 논의할 세 작품, 이해조의 『월하가인(月下佳人)』(1911),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1935), 김영하의 『검은 꽃』(2004)는 멕시코로 이주한 이민 1세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 작품은 멕시코 농장에서의 고된 생활뿐 아니라 농장 밖 2차 디아스포라도 다루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발표 시기의 차이는 이 세 작품에서 형상화된 내용과 주제意識의 차이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멕시코에서 맺는 '연대'와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 작품들을 비교·분석한다. 『월하가인』은 멕시코 이주를 둘러싼 담론들을 차치하고 이주노동자의 경험담을 독자들에게 익숙한 고생담, 성장서사로 바꾸었다. 『구름을 잡으려고』는 비합법적 계약 노동을 형상화 하면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취급당하는 현실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검은 꽃』은 멕시코 에네펜 농장 생활뿐 아니라 계약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미국과 유카탄 반도에 흩어져 살며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2222)

** 성결대학교 조교수

이 과정에서 공감의 연대, 인정의 연대가 작동한다. 멕시코 땅에서 중국인, 마야인 등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자들과 연대하고, 조선인 공동체 속에서 연대하면서 이들은 '조선인으로 살아남기'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주제어: 멕시코 이주 서사, 디아스포라,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공감, 연대, 「월하가인(月下佳人)」, 『구름을 잡으려고』, 『검은 꽃』

목차

1. 서론
2. 이주노동자 되기
3. 뿌리 뽑힌 자들의 '연대'
4.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
5. 결론

1. 서론

20세기 초 조선인들의 해외 이주 목적은 '노동'이었다. 이 당시 조선은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데다가 국내적으로도 정치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조선인들은 자연 재해로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천혜의 환경과 일한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광고와 소문은 많은 조선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행과 묵서가(墨西哥,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행은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였으나, 하와이 이주가 국가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던 것과 달리 1905년의 멕시코 이주는 '이민사기 사건'이라 할 만큼 문제적이었다. 게다가 이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이 일제에 강제로 병탄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이주 조선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으며, 계약 만료 후 고향에 돌아오기보다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을 택했다. 멕시코 노동 이민을 다룬 문학 작품 중 본고에서 논의할 작품은 이해조의 「월하가

인(月下佳人)』(1911),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1935), 김영하의 『검은 꽃』(2004)이다. 이 세 편의 소설은 멕시코로 이주해 농장에서 일한 이민 1세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모집 공고와는 전혀 다른 ‘노예’와도 같은 삶, 곤궁했던 대한제국에서의 삶보다 더욱 비참했던 농장 생활, 이후 2차 디아스포라의 삶 등의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¹⁾ 이주 노동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형상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민 서사에서는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뿌리내림을 위한 노력과 선택, 개척적인 삶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기존에 멕시코 이민을 다룬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이 세 편의 소설을 함께 다루지 않았다.²⁾ 아마도 발표 시기의 차이가 있고, 서사 내적

1) 「월하가인」의 주인공 심진사는 멕시코 농장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조선으로 돌아오며, 『구름을 잡으려고』의 준식은 목화 농장을 탈출해 미국으로 가 그곳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준식의 멕시코 생활은 4년 정도이지만, 멕시코 서사는 소설 전체의 1/3 정도나 된다. 『검은 꽃』은 에네켄 농장에서 계약 만료 후 유카탄 반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던 일포드 호를 뒀던 조선인들의 2차 디아스포라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세 작품은 멕시코 이주 노동을 다룬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에네켄 농장 이후의 삶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월하가인」의 심진사가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일종의 귀환서사라도 볼 수 있고, 『구름을 잡으려고』는 서사의 절반 이상이 준식의 미국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세 작품을 멕시코 이주 서사로 묶어서 논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뿌리 뽑힘과 새로운 뿌리 내림,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의 문제에는 ‘멕시코 이주 노동’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세 작품의 멕시코 이주 노동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오윤호는 「20세기 초 전지구적 이주와 서술 전략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 61, 2015)에서 주로 『검은 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월하가인」과 『구름을 잡으려고』를 비교하지만, 이는 서론에서 잠깐 그칠 뿐, 세 작품을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멕시코 이주를 다룬 소설인 이해조의 「월하가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중옥은 이 작품이 중국의 백화소설집인 『금고기관』에서 전체 서사의 골격을 차용하면서, 멕시코 이주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서사의 전면에 배치하여 『금고기관』의 영향력을 은폐하는 동시에 독자들의 호기심에 영합하면서 식민질서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김중옥, 「이해조 소설과 『금고기관』의 관련 양상-「월하가인」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4권 1호, 2017.) 1900년대 초반의 해외 이주가 정치적 장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신소설의 이주 서사를 통해 살펴본 논의 또한 주목할 만하다. (김형규,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시간의 차이에 따라 작품의 핵심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³⁾ 주목할 것은 강진구의 논의이다. 강진구는 이해조의 「월하가인」과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중심으로 “멕시코와 한인들의 멕시코 이민 관련 담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내 여타 관계적 경험들과 어떻게 접합되어 중국에는 ‘생지옥에 팔려간 노예’나 ‘버려진 불쌍한 동포’ 등과 같은 이미지로 수렴되는지”를 밝히고 있다.⁴⁾ 그는 「월하가인」의 주인공 심진사가 ‘풍도지옥’인 멕시코를 떠나 ‘극락세계’인 미국으로 건

46, 2011. ; 신은경, 「신소설에 나타난 이민 실패와 아시아주의 의식 연구-1910년 전후 신소설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27, 2020.)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이주 서사와 관련해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승희는 이 소설이 디아스포라 서사로서 지니는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이민 사기극’, 노예노동이었던 멕시코 이민을 재현하면서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미국 이주 역시 인종 차별적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면서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식민지적 현실을 상기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승희,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현대소설연구』 62, 2016.) 강진구 역시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아 디아스포라」(『어문논집』 74, 2014)에서 『구름을 잡으려고』가 한인들의 노동이주 과정의 문제점과 재미 조선인 2세의 정체성, 인종 차별 등 디아스포라 문학의 다양한 영역이 드러난다는 점을 논하였다. 미국 이주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우미영, 「식민지 시대 이주자의 자기 인식과 미국-주요섭과 강용흥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7, 2008 ; 구재진, 「우정과 현실, 조선 밖에서 조선 국민 되기-주요섭의 미국 이주 서사 연구」, 『구보학보』 17, 2017.)도 주목할 수 있다.

김영하의 『검은 꽃』을 역사소설로 분석한 연구(서덕순, 「2000년대 역사소설에 나타난 비역사성의 양상-김훈, 신경숙, 김영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8(1), 2009. ; 고혜선, 「검은 꽃에 나타난 역사와 허구-멕시코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3(1), 2010.)와 국가 담론의 측면에서 살펴 본 연구(윤애경, 「대한제국 디아스포라의 근대 체험과 국가 담론-김영하의 <검은 꽃>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38, 2017.)를 주목할 수 있다.

3) 송민호는 「월하가인」과 『검은 꽃』이 같은 멕시코 이민 사건을 다루지만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해조가 어이없는 전개에 낭만적인 제목을 붙였던 것은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작가의 시공간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것인 데 반해, 김영하는 멕시코로 향하는 일포드 호를 “이전까지 존재했던 계층, 성별, 권위 등 모든 허위의식들이 뒤섞이는 멜팅팟”으로 형상화하면서, 이주민들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유민”인 동시에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문화적 ‘베스티소’로 그렸다는 것이다. (송민호, 「1905년 대한제국에서 일어난 멕시코 이민사기 사건의 전말」, 『경북매일신문』, 2019.6.4.)

4)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墨西哥(멕시코) 이미지 연구」, 『어문논집』 60, 2014, 214면.

너간 후 성공하여 금의환향하는 과정이 신학문으로 상징되는 미국과 노예노동으로 상징되는 멕시코 간의 간극을 더 크게 벌려, 멕시코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었다고 보았다.⁵⁾ 반면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는 멕시코 노예노동에서 도망해 미국으로 이민한 이민 1세대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멕시코는 종신 노예로 전락시키는 땅이자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원주민들과의 유대가 가능한 연대의 땅으로 그려진다고 했다.⁶⁾ 강진구의 논의는 멕시코 이주를 다룬 일제 강점기의 소설이 재현하는 지점을 당대 담론과 연결시켜 보여주고는 있지만, 멕시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해 드러나는 멕시코의 이미지만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김영하의 『검은 꽃』을 중심으로 논하는 오윤호의 연구는 『검은 꽃』이 기존의 멕시코 이민 관련 작품의 멕시코 이민을 다룬 민족주의적 태도와 달리 “한인 멕시코 이민을 일회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의미가 담긴 역사적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국과 식민지, 제3세계를 가로지르며 유동적인 20세기 근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전지구적인 사건’으로 재인식”하였다고 보았다.⁷⁾

멕시코로 이주 노동을 위해 떠난 자들도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을까. 디아스포라(diaspora)는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이로(speiro)’와 ‘넘어서다’는 의미인 ‘디아(dia)’의 합성어로, 자의 혹은 타의로 고향을 떠났던 인종적·민족적 유리(流離)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용어이다.⁸⁾ 디아스포라는 원래 유대 민족의 이산(離散)을 가리키는 단어였으나, 현대적 상황에서는 외연이 확대되어, 같은 민족적인 기원을 지닌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 혹은 흩어져 살면서 같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나 외국에 살면서도 집단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규정하는 용

5) 위의 글, 227면.

6) 위의 글, 231-232면.

7) 오윤호, 앞의 글, 309면.

8) 가브리엘 세퍼, 장원석 역, 『디아스포라의 정치학』, 온누리, 2008, 28-29면.

어이다. 그래서 국제 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디아스포라는 “소속감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각들”을 보여주는데, 디아스포라가 ‘어디에서 왔는가’와 ‘어디에 있는가’를 오가고 또 그 두 질문을 포괄하는 소속감을 말하기 때문이다.⁹⁾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누구’이고, ‘우리들의 존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관한 물음들”¹⁰⁾인 ‘정체성’은 디아스포라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정체성은 투명하지 않고 절대로 완성되지도 않으며 내부에서 구성되는 생산물로,¹¹⁾ 특히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은 여러 문화를 공유하면서 내부에 다른 많은 ‘자기들(selves)’을 숨기고 있는 일종의 집합적인 ‘진정한 자신(one true itself)’이다.¹²⁾ 또 문화적 정체성은 ‘~임(being)’뿐 아니라 ‘~되기(becoming)’의 문제로,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시공간·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과거에 고착되지 않고 과거만큼이나 미래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¹³⁾

본고에서는 이 세 작품을 정체성, 연대(連帶)의 키워드로, 발표 시점에 따라 세 작품에 나타나는 이주·노동·뿌리내림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새로운 곳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조선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멕시코 이주노동을 재현한 세 작품의 시간 차이이다. 이 세 편의 소설은 발표된 시간의 차이뿐 아니라 소설 내적 시간도 차이가 있다. 「월하가인」은 멕시코 이민이 시작

9) 비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정영주 역,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에코리브르, 2014, 61-62면.

10) 찰스 테일러, 송영배 역, 『불안한 현대 사회』, 이학사, 2001, 51면.

11) Stuart Hall,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J. Rutherford, ed.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Wishart, 1990, p. 222.

12) *ibid.*, p.223.

13) *ibid.*, p.225.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에 알려진 멕시코 이민의 실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다시 디아스포라가 되거나 새 땅에 완전히 정착한 이주 조선인들의 이후의 삶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부분은 다루지 못했다. 그보다 20여 년 후에 발표된 『구름을 잡으려고』는 멕시코 이주노동과 미국 이민자들의 삶이 비교적 잘 알려진 시기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미국 이주와 정착 이후의 삶까지 보여준다. 『검은 꽃』은 멕시코 이주 사건보다 100년이 지난 시기에 쓰였으며 소설 내적 시간도 1905년에서 1916년 무렵까지여서, 소설 내적 시간만으로 본다면 「월하가인」보다는 길지만 『구름을 잡으려고』보다는 짧다. 또한 계약노동과 계약 만료 이후 멕시코의 조선인 디아스포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월하가인」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신소설이라는 점, 흥사단 단원이었던 주요섭이 『구름을 잡으려고』를 쓴 시기가 미국 유학시절이라는 점, ‘유랑’의 피가 흐르는 작가 김영하의 영혼을 끈 사건을 바탕으로 한¹⁴⁾ 『검은 꽃』의 세 작품은 창작시기의 특성뿐 아니라 작가적 특성도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서사 내적 시간의 차이, 창작시기의 차이와 그에 따른 작가의 인식 차이가 멕시코 이주노동과 조선인 디아스포라를 각기 다르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멕시코 재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주노동자 되기

「월하가인」, 『구름을 잡으려고』, 『검은 꽃』 세 작품은 이주노동자 모집책을 따라 멕시코로 이주했으나 가혹한 환경에 처했던 한인들의 디아스포라 삶을 보여준다.¹⁵⁾ 세 작품 모두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의 노동자

14) 김영하는 〈애니깽〉 이야기가 자신을 미혹시킨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를 이어 내려온 ‘유랑’ 때문이었다고 했다. (김영하, 「검은 꽃」이 피기까지, 『문학동네』 10(4), 2003, 4-5면.)

생활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멕시코 행, 에네켄 농장에서의 생활, 이후의 삶 등은 다르다.

멕시코 이주와 관련된 대략적인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4년 12월, 황성신문에는 “농부모집광고”가 실렸는데, 멕시코가 문명부강국이고 기후가 따뜻해 질병이 없는 곳이어서 이미 그곳에 이민한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큰 이득을 보고 있으니, 조선인들도 대륙식민합자회사에서 농부를 모집하는 좋은 기회를 얻어 멕시코로 이주하면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⁶⁾ 황성신문의 광고를 보고 부농의 꿈을 꾸었던 1033명의 조선인은 1905년 영국 상선인 일포드 호를 타고 제물포를 떠나 한 달을 항해하여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도착하였고, 반도 곳곳에 있는 에네켄 농장으로 팔려가 마야인 노예들과 비슷한 혹은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이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의 참혹한 현실이 조선에도 알려지게 되고¹⁷⁾, 이들을 미국 하와이로

15) 「월하가인」과 「검은 꽃」이 1905년 일포드 호를 타고 멕시코로 간 이주 사건을 서술한 것과 달리, 『구름을 잡으려고』의 준식의 멕시코 행은 공식 기록과는 다르다. 준식은 “십구세기의 맨 마그막 해 봄” 조선을 떠났고, 배는 미국을 경유해 멕시코에 도착했다. 소설 속에는 “준식이 속아서 간 때는 일천 팔백 구십 년 순 서반아족 독재의 전성시대로 한번 화인을 맞은 중은 일생 어디서나 중”인 시대였다. 강진구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데, 준식이 멕시코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만난 황건우는 청일전쟁 발발 전 미주 대륙으로 떠난 이였으니 결국 건우나 준식은 비공식적으로 이민을 떠난 이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계약노동자였는데도 주요섭은 이들을 ‘노예’로 재현하였는데 이는 주요섭이 창작 당시의 미국 한인사회에 퍼져 있던 멕시코 이주민 관련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멕시코 동포들의 변화의 움직임은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1905년 계약노동에 의해 멕시코로 이주한 노동자보다도 훨씬 이전인,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황건우와 준식을 재현함으로써 ‘노예로 전락한 불쌍한 동포’라는 기왕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므로 이 작품의 멕시코 서사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墨西哥(멕시코) 이미지 연구」, 230-232면.)

16) 멕시코농부 모집 광고는 황성신문에만 총 7회(1904년 12월 17일, 20일, 22일, 24일, 28일, 1905년 1월 9일, 13일) 게재되었다고 한다. (위의 글, 217면, 각주18번)

17) 멕시코 이주 조선인들의 생활은 이주 3개월 후 중국인의 편지를 통해 조선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1905년 7월 29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墨國移住民의 慘狀」에는 청나라 사람 河惠가 전한 소식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고종 황제는 실패를 파악하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이주시키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 계약 기간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이 조선인 이민 세대 중에는 과테말라 북부 밀림에 나라를 세웠다가 토벌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¹⁸⁾

『월하가인』의 심진사(심학서), 『구름을 잡으려고』의 준수, 『검은 꽃』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사회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문명’과 ‘풍요’를 내세운 멕시코 행을 선택했다. 이 세 작품 속 인물들은 크게 양반과 평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멕시코의 농장에서 이들은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다.

(윤) “개발회사라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빈한한 사람 생수 날 자리일세. 묵서가 지방에 진황지(陳荒地)가 썩 많은데 어찌 토옥(土沃)한지 아무 곡식이든지 되로 심어 섬으로 추수하는 고로, 지금 그 나라 자본가가 제각기 거대한 금화를 들여 다투어 개척을 하는데 후히 고가(雇價)를 주고 노동자를 모집하니까 그 일에 대하여 개발회사라 하는 것을 설립하여 동양사람 중에 노동을 자원하는 자를 소개한다네.” (중략)

(윤) “자네 말이 그렇게 나오기가 용혹무괴(容或無怪)하지마는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면 아무라도 한 번 가볼 만하다네. 개척을 한다니까 우리나라 같이 호미, 쟁이, 가래를 가지고 인력으로 땅을 파고 곡식도 손으로 심고 손으로 베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모두 기계로 하는데 이름이 노동이지 별것이 아니라 기계를 돌려주거나 하고 고등을 틀어 놓거나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작정하여 하루 몇 시간 동안쯤 하고 그 나머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윤치호를 현지로 보내지만, 경비가 떨어진 윤치호는 하와이까지만 가고 멕시코로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윤치호가 멕시코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는 『검은 꽃』에도 등장한다.)

한인들의 멕시코 이주 전후의 사정은 강진구의 논의 참조. (위의 글, 214-222면 참조)

18) 과테말라 내전에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무정부상태였던 과테말라 북부 밀림에 작은 나라를 세웠던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건은 1916년에 신한민보와 1922년 동아일보에도 보도되었다고 한다. (김영하, 앞의 글, 4면.)

지 시간은 제 자유로 공부를 하려면 공부도 하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도 하며 고가는 아무리 박한 주인을 만난대도 매일 거기 돈 삼사 원은 된다니 거기 돈 사 원이면 여기 돈 팔 원일세. (『월하가인』, 317-318¹⁹⁾)

심진사는 친구 윤조의 말만 듣고 멕시코행을 결정한다. 윤조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멕시코는 농부 모집 광고의 내용과 같다. 그뿐 아니라 ‘문명국’ 멕시코의 노동은 “일동일정을 모두 기계로” 하는, 고도로 과학화되어 육체노동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된다. 당시 육체노동에 시달리지만 일한 만큼을 누릴 수 없었던 조선인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환경임에 틀림없다. 멕시코로 떠나기 전 멕시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명국 이미지는 “지금 세상이 전과 달라서 동서양 각국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하여 목서가로 말한대도 우리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기보다 얼마 더 아니 힘을 들이면 넉넉히 들어가고 들어간 뒤에 피차 통신을 하려 해도 우리 시골보다 어려울 것이 없”(320-321면)다는 심진사의 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심진사로 대표되는 조선 밖 상황을 잘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조선은 비문명국, 미주 대륙은 문명국, 이상향인 것이다. 멕시코 이주노동에 대한 광고와 소문의 이상적인 내용은 ‘풍도지옥’ 멕시코 에네킨 농장의 삶과의 극명한 대비를 위해 설정된 것일 수 있다.²⁰⁾ 양반이 노동자가 되겠다

19) 이해조, 『월하가인』, 『홍도화(외)』, 범우사, 2004, 317-318면.

『월하가인』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0) 『월하가인』은 1911년 1월 18일에서 4월 5일까지 『메일신보』에 연재되었고, 보급서관에서 1911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1905년에 멕시코로 계약노동을 떠난 이들의 계약은 1911년에는 이미 만료되었지만, 멕시코 지역의 한인들은 2차 디아스포라 등으로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은 이주 후 바로 조선에 전해졌으므로 이해조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이러한 대비는 독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이후 심진사의 행보를 지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설에서 심진사가 멕시코로 가는 여정은 과감하게 생략된다. 조선에 전해졌던 내용은 멕시코 농장의 고된 현실이 주었기 때문에, 짐처럼 실려 멕시코로 가는 과정은 조선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심진사의 입을 빌려 멕시코로 가는 것이 시골 오가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다면 된다고 했던 것에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조선 밖 세계에 대한 거리 감각이 부족했던

고 멕시코행을 자원한 것은 당시 신분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은 꽃』에서 일포드 호에 승선한 여러 조선인 중 왕가의 일족인 연수의 가족을 비롯해 양반들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데 섞인 일포드 호를 타고 멕시코로 가는 동안 뿌리 깊은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노동자가 될 준비를 마친다. 그렇지만 「월하가인」에는 멕시코로 가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이주노동의 의미 파악도 없는 채 멕시코행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 얼마나 세계사적 흐름에 무지한지를 방증한다.

심진사의 멕시코 농장 생활은 조선에 알려진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상 그대로다.²¹⁾ “문명진화(文明進化)가 못다되어서 인류를 우마와 같이 천하게 대우하는 악풍이 그저 있어 “채찍질을 하여 뼈가 빠지도록 노동을 시키며” “악한 음식”을 주는 등 멕시코 농장은 기계화·근대적 노동이라는 소문과는 정반대다. 말도 통하지 않고 감시도 심한데다가, “동양 사람 우마 매매하듯” 팔기도 한다. 신소설 작가인 이해조는 멕시코 이주노동이라는 소재를 흥미 위주의 소재로 선택했고 그것을 당대 독자들이 잘 아는 고난 서사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이주노동 서사는 당시 신문 기사로 전해졌던 정도일 뿐이다. 대신 이해조는 멕시코 이주노동의 험난한 삶과 그 고단함을 조선인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남편 없는 장씨 부인의 기구함을 심진사의 고난과 병치시킨다. 심진사가 윤조의 말을 확인해보지 않고 덩석 멕시코로 갔다가 고생을 했던 것처럼, 장씨 부인은 방물장수 또성어미의 계략에 빠지기도 하고 남편의 의를 맺은 장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소설’ 작가 이해조에게는 독자의 흥미를 끄는 소재의 취사선택도 고려했을 것이다.

21) 그런데 이해조는 멕시코에서 조선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듯하다. 채찍질에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주거 환경, 조선인 노동자들을 매매했다는 것 등은 잘 알려진 바와 같지만 심진사가 했던 일을 “굳은 땅을 파고 무거운 수레를 끌”었다고 하는 서술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조선에서 땅을 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파악했던 듯하다.

시어의 첩 벽동집의 간계 때문에 어린 아들과 고난을 겪는다. 당대 독자들에게 익숙한 타의에 의한 장씨부인의 고난은 심진사의 고난과 겹쳐 읽힌다.

그러나 심진사는 ‘노동자’가 되지 못했다.王大춘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후 심진사는 예수교 목사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는데, “목서가 같지 아니”한 노동 환경에서 그는 상업학교에도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결국 서기가 되어 주미공사의 귀국길에 함께 귀국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진사는 잠깐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경험했지만, 노동자가 되지는 못하고 양반이었던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멕시코 내 조선인들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멕시코 이주와 노동 현실을 당시의 담론을 통해 ‘학습’한 이해조의 경우에는 당시의 현실적 프레임-국권 피탈, 개화 담론, 문명국에 대한 열망, 근대 지식에 대한 갈망 등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명국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새로운 것을 배워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회귀 서사는 당시의 사회진화론적 성격을 반영한 가장 ‘근대적’이고 이상적인 결론이었을 것이다.²²⁾ 신소설 작가 이해조는 심진사의 고난-성장-회귀의 도구로 멕시코 이주 노동을 선택했을 뿐,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월하가인」은 멕시코를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가지만 미국 역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한인들 내의 갈등뿐 아니라 강력한 인종차별, 멕시코만큼은 아니라 해도 고된 노동 현실을 팔호치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후 타국에 조선인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리는 『구름을 잡으려고』와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2) 멕시코 이주 노동의 현실을 보여줬던 이 작품의 제목이 ‘월하가인(月下佳人)’인 것 역시 노동 경험과 근대 학습을 완료하고 문명과 근대를 학습하고 돌아온 ‘가인(佳人)’ 심진사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름을 잡으려고』는 「월하가인」에 비해 멕시코로 가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준식은 “양국에는 노동자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노동자를 뽑아” 가는데, 가면 “노동을 해서라도 단박 부자가 된다”²³⁾는 ‘개발회사’에서 만난 이의 말을 듣고 미국행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준식은 원래부터 철도부설 일자리를 찾아 제물포에 온 ‘튼튼한 사지’의 노동자이니 노동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큰돈을 모아 가지고 땡땡거리며 돌아올 날을 꿈꾸면서” 배를 탔지만, 조선에서 멀어질수록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는 이들은 ‘노동자’를 뽑고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이들을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에 다시 그들은 갑판 우에 올라갈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이 단닐 수 있는 갑판은 이전보다도 훨씬 좁아졌다. 굵은 동아줄을 매여서 그들이 거닐 수 있는 갑판의 면적을 제한한 것이었다. (중략) 이리케 몇 일 지나는 동안에 준식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한 듯했다. 어째 이 양인 선부들이 잠시도 떠나지 안코 자기네들을 감시하는 것처럼만 생각이 되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중략)

왜? 무엇이 염려되어서 방 안 사람이 모두 잠잘 때 그 문을 쇠 채와두는가? (『구름을 잡으려고』, 42면)

이튿날 아침 깨어보니 그들이 드러온 방은 참으로 괴상한 감옥이었다. 양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들을 이런 방 속에 감금했는지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구름을 잡으려고』, 51)

“하나씩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천장 위로 두셋의 양인이

23)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푸른사상, 2019, 20면.

『구름을 잡으려고』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나타나서 단포를 손에 들고 만일을 경계한다. 그들이 열린 문으로 하나씩 나가는 쪽쪽 그들의 두 손에는 수갑을 채웠다. 그래서 갑판 우에 끌리어 올라가 선 이십 명의 노동자는 무슨 큰 죄나 지은 죄수들처럼 두 손에 수갑을 차고 하나씩 하나씩 육지에 내렸다. (『구름을 잡으려고』, 61면)

위 인용에서처럼 이 이동 과정은 노동자들을 이주시킨다기보다는, 노예를 실어나르는 것처럼 보인다. 준식은 선원들이 자신을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노예 혹은 죄수를 다루듯 대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런 상황에 계속 의문을 갖지만 의문에 그칠 뿐 “지금 그들의 처지로는 어찌할 재간이 없”다는 생각에 감금을 못내 받아들인다. 한 달의 이동 과정에서 이 동양의 노동자들은 노예라는 자신의 위치를 부지부식간에 받아들인다. 『검은 꽃』의 멕시코 행 여정이 ‘노동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준식의 여정은 노동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과정이다. 이들은 모집 단계부터 속아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로 ‘팔려왔다.’²⁴⁾ 준식의 분개는 멕시코 에네켄 농장의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향한다. 노동자들은 동향 사람들끼리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사람 우리도 아니요 돼지우리도 아니요 한 개”의 좁은 “독감이 우리”에 십여 명이 배정되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허리에 방울을 달고 목화밭으로 나가 감독 하에 목화를 따는 일을 했다.²⁵⁾ 하루

24) 준식은 같은 방에 있던 조선인 황건우에게 그 역시 개말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가려다가 멕시코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는다. 게다가 건우를 통해 들은 바로는, “육체가 죽어 없어지는 날까지 면하고 나갈 재간은 도모지 없”는 “영구한 종살이”라는 것이다. 한번 종으로 팔리면 팔뚝에 화인을 받고 도망했다 발각되면 다시 주인에게 붙잡혀 돌아온다는 건우의 말을 통해,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왔음이 명확해진다. 준식은 “자기 몸을 팔아먹을 주인이 없는 바에 종으로 팔려올 이유가 도모지 없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자기도 또 춘삼이도 모두 종으로 팔려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보니 그의 가슴은 통분하여 거의 찢어질 듯하였다.”(73면)

25) 『검은 꽃』에서는 일포드 호의 출항이 지연되면서 제물포에 돌았던 소문을 언급하는데, “이들이 모두 노예로 팔려간다는 소문”이 그것으로 “그들이 서명한 것은 노예문서요, 그들이 갈 곳은 흑인들이 일하는 목화농장이라는 것”이고, 대한제국 외부에서 이를 알게 되어 대륙식민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꽤 구체적인 소문이다. 『검은 꽃』의 이 소문은 『구름을

열네 시간씩 일을 하지만 “그 보수로는 오직 돌띠아 서른 개, 물 세 사발, 한 달에 한 번 같이주는 홉웃 한 벌, 돼지우리 같은 집, 옥, 매, 학대 이것들이 전부”(81면)인 준식은 화인을 찍고 동포끼리 말도 섞지 못하게 하고 감시를 하는 이 상황에 “대체 당신들이 나를 언제 어디서 샀오”(78면)하고 대들고 싶은 마음을 내내 가지고 있다. 준식을 통해 노예로 팔려온 현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준식의 안에 꿈틀거리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타의에 의해 강요당하는 노예의 정체성이 부딪치는 지점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준식의 인식은 미국으로 탈출한 후 미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된다. 『구름을 잡으려고』에 『월하가인』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멕시코 행 여정이 자세히 서술되는 것은 창작 시기에 따른 정보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지닌 준식이 ‘노동자’와 ‘노예’의 대우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의문을 품는 태도²⁶⁾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작가 주요섭의 인식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요섭은 〈작자의 말〉에서 이 소설을 “튀알리즘 우에다가 작자의 철학을 가미(加味)”하는 것이 창작 의도였으며, 준식의 죽음을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준식이가 한 멤버이든 시대 그 자체의 죽엄”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²⁷⁾ 이를 참고한다면 작가는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나 무작정 순응하지 않고 그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며 삶을 개척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 이주노동자 1세대의 삶을 준식에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이주 노동 현실에 대한 준식의 분개와 멕시코 탈출, 미국 정착 등의 과정에서 보이는 준

잡으려고』의 건우와 준식이 1890년대에 겪었던 일들과 일치한다.

26) 준식은 배에서 병으로 노동자가 죽자 외롭게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보며 인간으로, 노동자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분개하기도 한다. 단순히 ‘노동자’와 ‘노예’ 대우의 차이뿐 아니라, 준식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할 때의 태도에 대해 사고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7) 주요섭, 앞의 책, 401면.

식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창작시기가 『검은 꽃』은 멕시코 이주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멕시코 에네켄 농장의 조선인들의 생활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조선과 멕시코의 정세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속 언급된다. 『검은 꽃』에서는 조선인들의 멕시코 행이 대륙‘식민’회사의 소행이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영국의 비호를 받아 비인권적으로 진행되었던 하나의 사업임을 보여준다. 멕시코행배에 오른 이들은 『월하가인』과 『구름을 잡으려고』에서처럼 개화한 곳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이들이었으나, 『검은 꽃』은 개개인에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포드 호를 둘러싼 조선의 정치적 맥락을 언급하면서 이주노동을 떠나는 국민들을 지켜줄 힘이 없는 국가가 결국 이들을 내몰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내몬 국민들의 신분은 매우 다양했는데, 일포드 호에 오른 조선인들은 망국 조선의 축소판처럼 보일 정도이다.

암묵적으로 남아 있던 조선의 신분제도는 일포드 호의 선상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중략) 양반들은 갓을 숨기고 농민들은 가슴을 찢는다. 쓰는 말과 문자가 달라 몇 마디만 나누어도 그 출신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종도는 배에서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달았다.(『검은 꽃』, 40-41면²⁸⁾)

우선, 몰락한 양반들. 개항 이후 몰아닥친 격변기 속에서 토지나 관직을 잃고 이제 조상의 제사조차 지내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 자들이었다. (중략) 양반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내는 그들이 주도권을

28) 김영하, 『검은 꽃』, 문학동네, 2004, 40-41면.

『검은 꽃』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취게 되리라는 것을 평민들은 잘 알고 있었다. (중략) 하는 수 없이 양반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다. 거들먹거리는 팔자걸음은 저절로 고쳐졌으며 그 속도도 빨라졌다.

숫자로는 농민들이 가장 많았다.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 중국의 쿨리처럼 강인하게 단련된 근육과 골격이 그들의 특징이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선상생활에 불만이 없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이 나오는 생활은 그들로서는 꿈같은 것이었다. (중략)

농민들 못잖게 많은 사람들이 조장윤과 같은 대한제국의 군인들이었다. 200여 명이나 되는 이 젊고 건장한 자들은 대륙식민회사가 가장 자랑하는 인력들이었다. 얼핏 보면 농민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들은 대부분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생활자였다. 무질서가 몸에 밴 농민들과 달리 이들은 질서와 규율을 사랑하는 조직에서 자라났다. 이들은 무의미한 기다림과 배고픔, 엄혹한 환경에 익숙했으며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였다. (중략)

그리고 나머지는 최선길이나 김이정과 같은 도시의 부랑자들이었다. (『검은 꽃』, 43-45면)

일포드 호에는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들이 탑승했다. 주목할 점은 선상생활을 하면서 조선인들은 그나마 남아 있던 계층의식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정은 “거기에서도 저 조선에서처럼 반상과 노소, 남녀의 구별이 이리 엄할까. 우리가 탄 이 배를 보라. 양반이든 상것이든 줄을 서야 밥을 먹는다. 그는 머리 위를 가리켰다. 우리 위에 있는 저 양놈들 눈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조선놈일 뿐이다. 그들은 우리의 머리만 셀 뿐 족보에는 관심없다.”(89면)고 한다. 일포드 호에서의 한 달은 ‘조선인’이라는 큰 정체성 아래 있던 수많은 조선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탈각시킨다. 그리고 멕시코에 닿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양반이든 평민이든 상관 없이 에네켄 농장의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선상생활 한 달 동안 권위의 위계가 깨지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환상이 처

음 대면한 “문화적 혼합의 경험”인 것이다.²⁹⁾ 『검은 꽃』에서는 멕시코 땅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여준다. “평생 지평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인들에게” “조선에서와 같은 논과 밭”이 없는 “별판의 황막함”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지상의 모든 것을 증발시킬 듯이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서” 하는 낮질은 당장 닥쳐 올 조선인 노동자들의 미래이자 현실이었다. 이 풍경의 변화는 농민이었던 조선인, 노동자였던 조선인들에게도 그들에게 맡겨질 일이 이전의 ‘노동’과는 다른 영역임을 깨닫게 한다. 이들은 곧 ‘채찍 문화’의 모욕감과 자신들이 존 마이어스와 대륙식민회사에 속아 부당한 시스템에 놓였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농장 생활에 적응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고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가족을 건사하는 등 『검은 꽃』의 조선인들은 에네켄 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방식,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3. 뿌리 뽑힌 자들의 ‘연대’

뿌리 뽑힌 채 낫선 타국에서 익지 않은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 조선인들은 익숙지 않은 현실에 홀로 떨어져 있게 된다. 이들은 계약직 노동자였고, 노동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고 했었지만 그들이 바라던 생활과 멕시코에서 마주한 현실은 매우 달랐다.

사람들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없었다. 세 살 먹은 어린애까지 개미처럼 일해 아귀처럼 돈을 모아 계약이 끝나는 대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29) 송민호, 앞의 글.

마야인들은 가끔 부지런히 일하는 조선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은 돈을 벌어 돌아갈 곳이 따로 없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고향이었다. 어느 날 낫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땅에 금을 긋고 그곳을 아시엔다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먹고살려면 그곳에 와 일하라고 했다.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감독들은 설새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검은 꽃』, 150-151면)

인용한 부분은 멕시코의 조선인이 처한 애매한 위치를 잘 보여준다. 마야인들은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그 땅에 들어와 자신들을 식민화한 외부인들에게 고용되어 그 땅에서 살아간다. 마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 역시 농장주와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이지만, 조선인들은 세계 제국들의 농간에 멕시코까지 오게 된 디아스포라들이다. 피고용인, 피식민자라는 점에서 마야인과 조선인은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멕시코는 마야인들의 고향이고 조선인들의 고향은 아니다. 이 디아스포라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은 멕시코에 ‘도착’해서 만난 이들만이 아니다. 이들은 조선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철저하게 사농공상으로 나뉘어 공간이 분리된 채 살았던 이들에게 멕시코로 향하는 배, 아무 기댈 것 없는 망망대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습을 해체해 버리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멕시코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언어도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손에 익지 않은 일을 당장 시작해야만 했다. 준식은 스스로를 “한날 목화밭 기계가 되”었다고 한다. 문명국의 기계화 노동이라는 허상의 실체는 값싼 노동자들을 노동 기계로 부리는 것이었다. “하로 세 끼 돌띠아나 먹이고, 때따라 매질을 하면 이 로봇트(그실 로봇트보다도 더 기계적인 인형들)들은 주인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한다”고 말이다.(85면)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는 한 배를 타고 함께 건너 간 조선인 혹은 멕시코 농장에서 만난 조선인일 것이다. 『검은 꽃』은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조선인들이 각 농장으로 나뉘어 가지만 한 농장에 여러 조선인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고향인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었다는 불안감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인들끼리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 연대는 기존의 조선인 사회의 관습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층이나 신분과 같은 위계질서는 사라지고, 조선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노동자의 정체성과 멕시코의 새로운 종교와 위계·사회적 관계 등과 만나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한 농장에 모이지 못하는 이주노동 환경이라면 어떨까. 『월하가인』과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멕시코로 간 이주노동자들이 조선인이 아닌 타인과 맺는 연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이 두 편의 소설에서는 조선인을 지탱하고 돕는 ‘연대’가 조선인이 아닌 타인중·중국인, 멕시코 원주민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연대’는 “그 자체로 공동선의 실현을 표방하고 성취하는 가운데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이자 개인적으로는 “자기 결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³⁰⁾ 찰스 테일러는 다원화된 공동체적 삶 위에서 ‘연대’를 생각하는데, 그는 ‘연대(감)’은 근본적으로 평등한 인간 존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자들이 권력을 부여받는 것을 지향한다.³¹⁾ 테일러는 특히 ‘공감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함께 행동한 경험이 없다면 타인과의 공감적 연대가 더 약화되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희망 없는 것으로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²⁾ 파편화 극복과 연대감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 차원의 기획보다도 지역공동체나 소수 집단 등의 작은 부분적인 집단들의 노력과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³³⁾ 에네켄 농장의 최하위계층에 속하는 조선인 이주노동

30) 유현상, 「찰스 테일러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위」, 『통일인문학』 68, 2016, 199면.

31) 위의 글, 217면.

32) 찰스 테일러, 앞의 책, 144면.

33) 위의 책, 143-150면.

자들이 이주노동자 집단 내에서 연대하거나(『월하가인』, 『검은 꽃』) 주변화된 소수민족끼리 연대하는 것(『구름을 잡으려고』)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차이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정의 정치’의 실천적 양태는 결국 연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연대는 진정성의 표현이자 공공선의 실현 방법”이며, 이러한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자 정치적 실천이 된다.³⁴⁾

「월하가인」에서 심진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이는 중국인이다.

사람 살 곳은 곳곳마다 있다고 그 농막에는 다행히 청국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왕대춘이라 하는 청인은 산동사람으로 조선에 건너와서 여러 해 장사를 하다가 중병으로 인하여 자본을 다 없애고 역시 목서가로 노동 생활을 하려고 건너온 자이라 (중략) 심진사의 측은한 경상을 보고 토인에게 간청하여 노동도 덜 시키고 학대도 덜 하게 하니 심진사가 처음에 가 있던 농막에다 비교하면 적이 편안하나 한갓 집소식을 막연히 몰라 주야 성화를 하더니 왕대춘이 심진사를 아무쪼록 고국으로 구허하여 보내주고 싶으나 자기 역시 근간 한 가지로 간신히 토인에게 신용을 얻어 학대나 면할 뿐이지 심진사의 몸을 마음대로 방송하게 할 능력이 어찌 있을손가? (『월하가인』 348-349면)

(왕) “아무리 여간 금전을 저축하나 사람되어 짐승의 대우를 받고 어찌 오래 있으며 아직은 몸에 별탈이 없어 주인의 뜻을 맞춰 노동을 부지런히 함으로 과히 팔시는 아니 당했으나 사람이 어찌 매양 질고(疾苦)없기를 바라리요? (중략) 피차에 몰랐으면이어나와 일반 동양 사람으로 어찌 월나라가 진나라의 파괴함을 보듯 하리요? 내 힘자라는 대로 어디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터이오. 기회라는 것은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데 마침 나의 중형이 화성돈에 있는 것이 좋은 교대인즉 만일 공의 일만 들어 말하고 미국으로 건너갈 주선을 하여 달라 하면 응당 나의 일이 아닌 고로

34) 유현상, 앞의 글, 218면.

헐후히 힘을 쓸 지라, 그러므로 시작한 김에 나도 공과 함께 이곳을 떠나
고자 함이로다.” (『월하가인』 349-350면, 밑줄:인용자)

심진사는 양반 출신에 육체노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멕시코 농장 생활이 매우 어렵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왕대춘은 중간관리자나 통역도 아닌데 오로지 “천성이 부지런하여 노동을 힘써 함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다른 노동자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신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우연적 상황이 연이어 발생한다. 중국인 왕대춘과 조선인 심진사는 필담도 아니고 ‘조선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같은 노동자인 왕대춘은 심진사가 “조선 사족으로 편히 성장한 귀꼴”이라 “노동으로 생활하려다가는 기력이 쇠진하여 본집에도 돌아가보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며 그를 특별대우해 주기를 청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왕대춘이 심진사를 돕는 것은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이다. 심진사의 고난에 공감하는 왕대춘은 둘 사이 ‘공감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심진사와 왕대춘의 관계는 청일전쟁 이후 중국의 힘이 약해지고 일본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세계사적 맥락과 오랫동안 중화-소중화로 얽여 있었던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꽤나 다툼에서 밀려난 중국-조선의 연대로도 읽힐 수 있다. 그렇지만 왕대춘이 심진사를 돕는 것은 그런 정치적 맥락보다도 타지에서 고생하는 같은 문화권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는 이유가 더 클 것이다. 왕대춘은 조선과 계속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동양인이자 조선인인 심진사에 대한 공감의 크기가 더 크고, 그것이 둘 사이의 공감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³⁵⁾ 왕대춘이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과 심진사의 몸값을 속량하는 동시에 강대국 미국을 통

35) 왕대춘은 심진사의 아내 장씨 부인도 돕는다. 중국에서 왕대춘의 아버지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왔던 이가 조선인 장씨부인의 외조부였기 때문에 장씨 부인을 찾아 은혜를 갚았다는 것이다. 왕대춘은 장씨 부인과 심진사가 부부인 줄 몰랐지만, 조선 안팎에서 심진사 내외를 어떤 대가 없이 도운 이는 왕대춘이다. 마치 영웅소설에서 어려움에 빠진 주인공을 돕는 귀인처럼 말이다.

해 노동 계약에서 온전히 놓여나려는 이 계획에 일본은 배제되어 있다. 이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는 이미 국권이 피탈된 때였으나, 심진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일본은 보이지 않는다.³⁶⁾ 전통적인 국제 관계와 미국이라는 신흥강대국이 심진사의 근대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다.

「월하가인」에 지정학적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공감에 큰 역할을 했다.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주변화된 소수민족들의 공감과 연대가 큰 힘을 발휘한다. 준식은 4년 동안 농장에서 일하면서 삶의 욕망을 가진 “움직이는 송장” 생활을 계속해 나던 중 농장 근처에 와 노래를 부르던 흥인 청년 아리바를 알게 된다. 준식은 자유롭게 노래하던 아리바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이것저것 돌아볼 여력이 없이 곧 달려들어 상처에 입을 대고 쪽 드리 빨”아 응급처치를 했다. 준식은 ‘사람’에 대해 사유하는 인물로, 노동자인데 왜 감금당하는지, 왜 노예의 낙인을 찍고 부당하게 대하는지, ‘노동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아리바가 곤경에 처했을 때 곤장 대처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아직 까지도 자기 목숨을 걸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려 하는 애정이 다 말라버리지 안코 남아 잇었”(91면)던 것에 스스로 감격한다. 목화 농장의 기계처럼 살다 보니 사람에 대한 공감을 잃었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아리바 역시 준식을 목화 농장의 노예로 대하지 않고 “센을,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표시를 한다.

‘센을! 그것이 무엇 그리 명예스러운 존칭이라? 그러나 잇때껏 그는 이

36) 이러한 점은 「월하가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준식이 배를 타고 멕시코로 갈 때에도 중국인 노동자와는 작은 교류가 있지만, 일본인 노동자를 배에 실었다는 서술은 있지만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다. 멕시코에서 탈출한 준식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도 일본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승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소설은 이러한 비극을 일본인을 제외한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만의 몫으로 그려내”며 “동아시아의 패권 국민인 일본인을 조선인, 중국인과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 방식으로 내셔널리티와 권력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희, 앞의 글, 167면.)

대단치 안흔 존칭을 바다본 적이 없었다. 감독의 눈에 종들은 ‘센올’이 아니고 한 기계이었다. 그 노래하든 청년도 혹은 한 시 전까지라도 준식을 한 ‘센올’로 보지 안코 한낱 ‘종’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 그의 목숨이 준식의 손으로 구원된 때 그는 준식을 ‘센올’이라구 부른 것이다. 곧 종이 아니고 사람이 된 것이다. (『구름을 잡으려고』, 92면)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농장에서 원주민 청년 아리바는 준식을 그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 준식과 아리바는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자율적인 주체들이 타인의 능력과 속성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적 연대가 가능해지는 법이다.³⁷⁾ 아리바는 흥인들이 농장을 습격했을 때 준식과 춘삼을 데리고 농장을 탈출했다. 아리바의 부족 사람들은 부상이 심해 죽은 춘삼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등, 준식을 자기 부족의 일원인 양 대한다. 아리바와는 비(非)백인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자기 민족의 땅을 빼앗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리바가 속한 ‘나후아’(나우아) 족은 고대 인디오 부족인데 다이아스 정권 이후 중심에서 밀려난 족속이다. 그들은 게릴라처럼 지방청을 습격하거나 아시엔다의 플랜테이션을 습격한다. 소설에는 나우아 족이 잃었던 정권이 탐이 나 폭동을 저지른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멕시코 땅은 스페인이 정복하기 전부터 원주민들의 땅이었으므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정권이 아니라 빼앗긴 땅에 대한 주권을 표하는 일인 셈이다. 이 원주민 부족의 폭동은 독립을 위해 폭력적 방법을 동원했던 조선인들의 모습과도 겹친다. 고향을 빼앗기고 주변화된 원주민이라는 처지는 아리바와 준식에게 공통되는 정체성이다.

준식은 아리바의 부족에 머물면서 그들과의 친연성을 찾아낸다. 준식은 흥인들과 조선인이 외모로도 풍습으로도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

37) 이승훈, 「다양성, 동감, 연대성」, 『사회사상과 문화』 25, 2012, 29면.

는다. 게다가 준식(그리고 치료 중 죽은 춘삼까지)에게 아리바와 그의 부족이 보여주는 모습³⁸⁾은 조선인들의 ‘정(情)’이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곳곳에서 준식은 아리바와 공감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비슷한 점을 찾아내며 이들과의 ‘연대’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구재진이 지적한 것처럼,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동감과 우정은 ‘조선인’이어서가 아니라 타민족·타종족을 향해서도 열린 ‘본래적 동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³⁹⁾ 아리바와 흥인 부락 사람들의 우정은 타자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백인의 타자’라는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 놓인 이 우정은 우정의 정치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⁴⁰⁾ 후에 미국에서 죽기 직전 준식은 환상 속에서 아리바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는 서로 목숨을 빚진 사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준식의 2차 디아스포라 생활의 밑바탕에는 ‘조선인’이라는 태생적인 정체성보다도 아리바와의 공감과 연대에 기반한 문화적 정체성이 미국에서의 준식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월하가인』이나 『구름을 잡으려고』와 달리 『검은 꽃』은 이주노동자가 되었던 한두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멕시코 행 배를 타고 함께 갔던 조선인 무리에 초점을 맞춘다. 『검은 꽃』은 앞의 두 소설 속 농장 생활에 대한 묘사와는 달리, 1033명의 조선인들이 22개의 농장에 나뉘어 갔다. 조선인들이 한 농장에 머무는 것도 가능하고 가족이 함께 이주한 경우 한 가족이 한 파하에서 사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은 농장 안에서 조선인 마을 공동체를 이룬다. “한인들이라곤 오직 그들밖에 없었다. 그러니 결속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빠르게 농장 생활에 적응한다. 김치도 담그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농장주의 감시

38) 아리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준식을 미국까지 데려다 준다. 미국에서도 흥인 부락을 소개해 준식이 그곳에서 미국 생활의 바탕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

39) 구재진, 앞의 글, 177-178면.

40) 위의 글, 180면.

를 피해 박수무당을 불러 굶도 하는 등 가급적이면 조선인으로 지켜 왔던 문화를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 노름과 술 같은 부정적인 것 역시 고수한다. 왕족이며 양반인 자신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이종도와 같은 인물도 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조선’의 일부분이고 그것까지도 여기 에네켄 농장의 조선인 공동체에 재현된다. 결국 농장 내 조선인들은 떠나온 고향 ‘조선’을 사회적으로 상상한다.⁴¹⁾ 이 사회적 상상 속에서 조선인들은 서로 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조선인끼리의 연대는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연대이다. 이 연대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볼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계약 만료 후의 조선인들을 연대할 ‘한인회’, ‘신대한(新大韓)’에 대한 이상 역시 이 사회적 상상에서 기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4.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문화적 정체성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멕시코에 간 조선인들의 2차 디아스포라 문제이다. 준식을 제외하고, 심진사나 윌포드 호의 조선인들은 엄연히 ‘계약노동자’였기 때문에 4년의 계약 기간 이후 이들은 자유가 된다. 그렇지만 혹독한 농장 생활을 견디지 못해 계약 만료 전에 농장을 탈출하기도 하고,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며 농장에 머물거나 유카탄 반도 각지로 흩어지는 등 조선인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모국인 대한제국이 사라졌으며, 농장에서 번 돈으로

41)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대들, 그리고 그러한 기대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과 이미지들”로, “공통의 실질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성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공통의 이해”이다. (찰스 테일러, 이상길 역,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0, 43-44면)

는 돌아갈 뻔했을 댈 수도 돌아간다 해도 먹고 살 밑바탕이 없었으며, 마야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는 멕시코가 제2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2차 디아스포라는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든다.

먼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월하가인」의 심진사와 『구름을 잡으려고』의 준식의 2차 디아스포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두 작품의 2차 디아스포라는 창작 시기를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다. 전술했듯 「월하가인」에서 심진사는 멕시코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가고, 미국 화성돈에서 공부를 하고 지위를 얻어 소위 ‘금의환향’한다. 그렇다면 「월하가인」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메리카 대륙 곳곳으로 흩어졌던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삶과는 다르게 심진사는 조선으로 귀국, 그것도 금의환향했기 때문이다. 같은 멕시코 이주노동을 다루는 작품이라 해도, ‘신소설’인 「월하가인」에서 보이는 디아스포라의 모습은 ‘근대인으로서의 귀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멕시코 이주노동을 다루는 소설들과 매우 다르다. 이는 조선인 양반의 정체성에 변화가 없는 심진사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진사가 멕시코행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난은 전근대적 세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진사’를 달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배우던 시대는 신식 학교와 함께 사라졌다. 멕시코의 농장에서 일을 하고 화성돈의 예수교 목사 집에서 사환으로 일을 했다 해도 심진사는 조선의 양반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다. 고비마다 귀인을 만나 육체노동자가 되지 ‘못한’ 심진사는 결국 자신의 태생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타국에서도 지식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진사’에서 ‘국장’이 되어 조선에 돌아온다. 그러므로 심진사는 멕시코에서 조선으로 오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며 신지식·신문물을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진사의 도착지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조선 땅이다. 심진사의 귀향은 실제와 다른 완전한 허구인데,⁴²⁾

42) 김종욱은 심진사의 이민과 귀국 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데, 갑오농민전쟁을 부랑잡배들의 폭동으로 비하하고 국권이 피탈된 대한제국을 정상적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역사적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인 동시에 일제의 식민담론에 편승

조선-멕시코-미국-조선에 이르는 과정에 일본이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적이다. 현실에서 소재를 차용했지만 이주노동에도 제국들의 역학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구시대적 세계관 위에 ‘미국’의 힘을 얻은 현실과 유리된 이상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심진사의 멕시코 행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난일 뿐이다. 심진사는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한 명, 조선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구시대의 조선을 떠나 근대를 배우고 돌아오는 예외적 개인일 뿐이다.

반면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는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이 디아스포라는 결국 구름을 잡기 위해 뛰어다닌 세월을 의미한다. 준식은 멕시코로 떠났을 때부터 미국에 정착한 초반까지도, 고향에 기와집을 사고 가족을 거느리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순애와 사진결혼을 한 이후 그의 꿈은 포도밭과 통나무집에서 가족과 사는 것으로 바뀐다. 더 이상 그는 조선 행을 꿈꾸지 않고 미국 서부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원했다. 그 뿌리는 준식-순애-지미의 가정과 ‘땅’이었다. 조선인 농부 출신인 준식의 뿌리는 ‘농부’였고, 조선이든 미국이든 그의 새로운 뿌리는 역시 땅에 있었다. 그렇지만 순애가 도망가면서 그의 뿌리는 다시 뽑히고 미국 서부를 방랑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새로운 뿌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해도 아들 지미가 된다. 지미가 미국인으로 미국에 뿌리내리는 것이 곧 그의 새로운 뿌리내림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준식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근원은 아리바가 베푼 목숨을 건 사랑에 있었고, 그것이 지미를 통해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준식이 지켜 온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땅’과 ‘가족’에 대한 애착뿐이었다. 그가 없는 형편에도 신문을 구독하고 ‘조선’

하여 식민 질서를 정당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종욱, 앞의 글, 22면)

심진사의 이주 실패는 조선인들의 탈조선을 문제로 인식했던 일본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는 연구도 주목할 수 있다. 신은경은 본격적인 조선에 대한 식민 정책이 이루어졌던 시기, 서구를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이민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것을 읽는 조선인들에게 서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조선으로 회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신은경, 앞의 글, 66-67면)

을 기억하는 것은 사라진 나라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근원이 조선이 가르쳐 준 ‘땅’과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식은 멕시코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지만, 미국에서 포도밭을 일구면서부터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조선적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 보인다.

『검은 꽃』의 조선인 이주노동자는 “군인과 지식인, 도시 생활자 등이 주축을 이루어 문자 해독력과 지식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채찍질이 통하지 않았고, 유카탄의 법률이 농장주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깨우쳤기 때문에 “하루하루 날짜를 세며, 그러나 해야 할 일은 꼬박꼬박 해치우면서 오직 바깥 세상만을 꿈꾸었다.” 조선인들과 연대하며 농장측과는 각을 세웠던 조선인 노동자의 중심에는 대한제국의 제대군인들이 있다. 그들은 불합리에 항거하는 깨어있는 인물들이며, 육체적으로는 훈련으로 다져진 체력을 가진 건장한 남자들이며 조직에 익숙하다. 농장에서 이루어진 몇 번의 파업과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은 대부분 이 제대군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농장 내 조선인 공동체는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동시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 속에서 기존의 신분 체계나 그에 따른 불합리가 없는 새로운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체성에는 불리 불가능한 두 차원의 정체성-개인적 정체성과 집합적 정체성-이 접합되어 있다.⁴³⁾ 자아는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정체성은 공동체가 인정하는 공동선(共同善)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⁴⁴⁾ 이 ‘인정’은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⁵⁾ 멕시코 농장의 조선인들은 ‘인정’ 투쟁을 통해 조선인 이주노동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제대군인들을 중심

43) 찰스 테일러, 윤평중, 「특별대담-찰스 테일러, 그의 철학을 말한다」, 『철학과 현실』 55, 2002, 152면.

44) 김의수, 「찰스 테일러에서 공동체와 민족주의」, 『범한철학』 44(1), 2007, 6면.

45) 찰스 테일러, 윤평중, 앞의 글, 154면.

으로 한 첫 과업에서부터 이들은 메넴으로부터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냈다. 일포드 호를 타고 온 1033명의 조선인은 출신도 계급도 제각각이었던 것처럼 조선인 공동체와의 연대 혹은 이산의 방식 또한 제각각이다. 바로 신부의 은십자가를 훔쳐 배에 탔던 최선길이 권력과 종교가 결합된 메넴 식의 천주교로 회심하면서 조선인들과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나 계약 만료 전에 농장을 탈출했던 김이정,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와 떨어져 통역관 권용준에게로 간 이연수, 스페인어 실력을 쌓아 다른 농장에 통역관으로 팔려 간 이진우 등이 그러하다.

이 제대군인들 중 조장윤은 농장의 한인 대표 격이다. 그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조장윤은 한인들의 공동체·연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형태의 ‘한인회’를 구상한다.

조장윤은 일단 농장에 남았다. (중략) 그렇다면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규합하는 조직도 분명 필요해질 것이다. 지금이야 각 농장의 계약노동자, 사실상의 채무노예로 묶여 있지만 내년엔 다를 것이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조직의 장으로 자기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여기야말로 반상의 차별이 전무한 곳이 아니냐. 소수의 양반계급 출신들은 각 농장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제게 맡겨진 일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 자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리가 없었다. 그에 비해 그는 러시아식 신식 군대에서 편제와 조직을 배웠고 리더십과 강인한 정신력을 체득했다. (중략)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배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중략) 하니, 제대 군인이 물경 200명이나 되는 이곳이야말로 새로운 독립의 군대를 창설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게다가 이곳은 일본의 감시도 없으니 그런 일을 도모하기에 더없이 편리하다.

그때부터 장윤은 스스로 정립한 승무(崇武)의 사상을 주변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카탄의 한 농장에서 상상해낸 새로운 국가의 모습은, 1960년대 박정희 소장에 의해 현실화될 군부정권이나 아랍 세력과 쉽

이 전쟁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의 형태에 가까웠다. 동시대로는 중국에서 출현한 위안 스카이 등의 군벌정치를 닮아 있었다. 나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인 또는 전직 군인에 의해 통치되고, 자주적 군사력을 기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개병제 아래에서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진다. 언론(그는 상소나 올리는 백면서생들을 떠올리고 있었다)은 적절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우선은 일본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주변의 강대국들은 격퇴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중략)

그의 뜻에 공감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계약이 끝나 농장을 나가게 되거든 돈을 각출하여 학교를 세웁시다. 무를 숭상하는, 그렇지, 승무학교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어두어야겠습니다. (중략) 그는 이러한 구상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이마에서 굵은 땅방울이 떨어져 거친 종이를 적었다. (『검은 꽃』, 254-256면)

조선인 공동체의 연대는 멕시코 땅의 ‘한인’과 한인 공동체에 대한 모국과 타국, 다른 디아스포라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결국 계약 만료 직전, 메리다에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산하 메리다 지방회가 설립되었고 조장윤은 초대 회장이 되었다. 조장윤이 이끄는 한인회는 승무학교를 세우고 을사조약 무효 선언을 발표하고 시가행진을 하는 등,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잊은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메리다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⁴⁶⁾ 여기에는 일본에 대한 피식민자의 태도도 찾아볼 수 있다. 국권 피탈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무력한 국가에 대한 울분과 승무사상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한다. 한인회에 대한 구상은 재외동포들의 연대를 벗어나 사라진 나라를 복원하려는 데까지 나아간다.

46)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장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정에게 장윤은 이름을 준 아버지 같은 존재이지만, 장윤의 사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기도 결국 ‘신대한’이라는 이상을 잠시나마 실현한 것도, 그리고 그 이상과 함께 산화한 것도 이정이라는 점, 그래서 다양한 조선인들을 다루지만 소설의 시작과 끝이 새로운 세대인 이정에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띠깁에 도착한 날, 조장윤은 모두를 모아놓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아무 제지도 없이 도착한 것으로 보아 이곳은 무주공산임이 확실하다.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일이 있다. 이곳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저들에게 돈을 받으면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고 남을 자들은 남아 이곳에 나라를 세우자. 국호는 신대한(新大韓)으로 하고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과 미국, 조선에 알려 나라가 아직 살아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자. (중략) 어차피 하와이로 간다 해도 역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남의 부림을 받아야 하나 이곳은 자유다. 독립된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에 흩어진 동포들도 모두 불러들여 농사 짓고 장사하며 사는 것이다. 발해가 따로 있느냐. 이곳이 바로 발해지. (『검은 꽃』, 342-343면)

조장윤의 숭무사상이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은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었다. 특히 농장을 탈출해 여러 농장을 전전했던 이정은 대농장체제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착취구조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멕시코 국민들도 어려운데 이민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약자 중의 약자라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정이 조장윤의 ‘신대한’을 수용한 것은 조장윤의 사상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 힘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조장윤의 ‘신대한’은 조선인 중심의 타민족을 배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장윤 세대와 김이정 세대의 차이가 드러난다. 태생이 장돌뱅이였고 일포드 호에서도 일본인 요리사와 친분을 맺었으며 후에 여러 농장의 현실을 경험하고 용병으로 멕시코 내전에서 공을 세웠던 이정은 ‘조선’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다. 그는 디아스포라로 또 세계인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을 이미 받아들였다. 문제는 장윤이 ‘신대한’의 땅으로 고른 띠깁은 원주민들에게는 ‘신성한 땅’이라는 것이다. 외침을 겪고 돌아갈 곳을 잃은 조선인이 다른 이들의 신성한 땅을 무주공산이라며 차지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식민주의적 발

상이다. 장윤의 승무사상이 조선인 중심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장윤의 ‘신대한’은 멕시코를 점령했던 외세, 조선을 강탈한 일본과 다를 바 없어진다. 반면 이정의 주도로 세워졌던 ‘신대한’은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아닌, “우리만의 나라”이다. 즉 조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더한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나라 말이다.

그리고 한달 후, 이들은 신전 광장에 떠갈 역사상 가장 작은 나라를 세웠다. 국호는 신대한이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국호는 대한과 조선뿐이었으므로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야 혁명군 지휘관이 붉은 황소를 보내왔다. 이정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곳에서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곧 페탕 호수 쪽으로 옮겨갈 작정이라고 안심시켰다. (중략)고사가 끝나자 이정이 말했다. 이 나라는 반상과 귀천의 구별이 없는 새로운 나라이다. 지금 이곳의 우리가 그 운명에 책임을 진다. 멕시코와 조선에도 알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동참토록 하자. 그러나 이 건국 선언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들의 나라는 그로부터 일 년이 넘도록 떠갈의 밀림에서 살아남았다. 신대한은 탈영과 도둑질을 가장 먼저 금했다. 한 달 만에 마야의 처녀들과 결혼하는 병사들이 생겨났다. 나라는 또한 조혼과 축첩을 금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야인들과의 혼인이 늘어났다. 마야 게릴라들은 그를 개의치 않았다. 결혼식은 마야식과 조선식을 절충하여 열렸다. (『검은 꽃』, 350-351면)

멕시코의 조선인 디아스포라가 만든 문화적 정체성은 짧게 서술되는 ‘신대한’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마야인의 신성한 땅에 세워졌던 신대한은 정부군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혁명적 세상을 꿈꾸었던 이정은 신대한의 국민으로 죽고, 장윤은 메리다 한인회에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 이처럼 이주노동과 국권피탈이라는 동일한 경험도 멕시코 내 조선인 공동체 내에도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멕시코 계약노동이 종료된 직후 발표된 「월하가인」, 1930년대에 발표된 『구름을 잡으려고』, 멕시코 이주 약 100년 후 발표된 『검은 꽃』은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이주노동의 재현과 디아스포라의 형상화에는 차이를 보인다. 「월하가인」은 ‘이주노동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슈가 되었던 이주노동자의 경험담을 독자들에게 익숙한 서사구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로 바꾸어 버렸다.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의 고단함이나 불공정한 계약에 소모되는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의 고난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멕시코 이주노동은 개인의 성장과 금의환향을 위한 고생담으로 사용되었다. 멕시코 이주를 다룬 첫 소설이지만 이 소설에는 조선인 디아스포라는 생략된 채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이 소설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는 점, 멕시코 이주노동자들과 물리적 거리는 멀고 시간적 거리는 너무 가깝다는 현실적 문제, ‘신소설’에 기대하는 당대 독자들의 흥미라는 여러 문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계약 노동과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둔 『구름을 잡으려고』는 미국의 한인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은 주요섭이 그들의 담론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이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에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녹여냈다.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1905년 멕시코 이주보다 먼저 있었던 비합법적 계약 노동을 형상화하면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대우받는 현실에서 인권과 노동권, 이주노동자라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멕시코 계약 노동으로부터 약 100년 후 발표된 『검은 꽃』은 소재가 된 사건과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멕시코 이주 노동을 둘러싼 세계사적 흐름과 조선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상황은 물론 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다각도로 고찰하면서 이러한 외적 현실이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검은 꽃』은 이주노동자 중 한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포드 호를 타고 멕시코로 간 조선인들에 집중하면서 디아스포라들의 연대와 조선인의 정체성 위에 만들어 나가는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떠한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면서 조선적 정체성을 일견 고수해나가는 이들과 새로운 뿌리내림을 시도하는 이들을 보여주면서, 한 배를 타고 멕시코로 갔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 이주노동이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으나 창작시기와 그에 따른 작가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세 작품에서 재현되는 조선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가 인종적, 민족적 유리 상태를 말하지만 같은 멕시코 이주를 다루는 이 세 작품에서 재현되는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양상은 다양하다. 어디로 갔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따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다르게 형성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정체성 역시 차이가 난다. 이는 멕시코 이주노동이라는 사건에 대응하는 시대적 차이가 디아스포라 유형의 다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영하, 『검은 꽃』, 문학동네, 2004.
이해조, 「월하가인」, 『홍도화(외)』, 범우사, 2004.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푸른사상, 2019.

2. 단행본

- 가브리엘 세퍼, 장원석 역, 『디아스포라의 정치학』, 온누리, 2008.
비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정영주 역,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예코리브르, 2014.
찰스 테일러, 송영배 역, 『불안한 현대 사회』, 이학사, 2001.
찰스 테일러, 이상길 역,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0.

3. 논문

- 강진구,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문론집』 74, 2014, 247-274면.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멕시코(멕시코) 이미지 연구」, 『어문논집』 60, 2014, 211-237면.
고혜선, 「『검은 꽃』에 나타난 역사와 허구-멕시코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3(1), 2010, 199-229면.
구재진, 「우정과 헌신, 조선 밖에서 조선 국민 되기-주요섭의 미국 이주 서사 연구」, 『구보학보』 17, 2017, 165-194면.
김영하, 「『검은 꽃』이 피기까지」, 『문학동네』 10(4), 2003, 1-6면.
김의수, 「찰스 테일러에서 공동체와 민족주의」, 『범한철학』 44(1), 2007, 207-232면.
김중욱, 「이해조 소설과 『금고기관』의 관련 양상-「월하가인」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4권 1호, 2017, 11-33면.
김형규,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2011, 101-134면.
서덕순, 「2000년대 역사소설에 나타난 비역사성의 양상-김훈, 신경숙, 김영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8(1), 2009, 87-107면.
서승희,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현대소설연구』 62, 2016, 159-185면.
신은경, 「신소설에 나타난 이민 실패와 아시아주의 의식 연구-1910년 전후 신소설을

-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27, 2020, 61-85면.
- 오윤호, 「20세기 초 전지구적 이주와 서술 전략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1, 2015, 301-325면.
- 우미영, 「식민지 시대 이주자의 자기 인식과 미국-주요섭과 강용홍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7, 2008, 325-359면.
- 유현상, 「찰스 테일러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위」, 『통일인문학』 68, 2016, 195-222면.
- 윤애경, 「대한제국 디아스포라의 근대 체험과 국가 담론-김영하의 〈검은 꽃〉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38, 2017, 297-323면.
- 이승훈, 「다양성, 동감, 연대성」, 『사회사상과 문화』 25, 2012, 5-33면.
- 찰스 테일러, 윤평중, 「특별대담-찰스 테일러, 그의 철학을 말한다」, 『철학과 현실』 55, 2002, 144-160면.

Stuart Hall,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J. Rutherford, ed.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Wishart, 1990, pp. 222-237.

송민호, 「1905년 대한제국에서 일어난 멕시코 이민사기 사건의 전말」, 『경북매일신문』, 2019.6.4.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Korean Diaspora in the Mexican Migrant Narrative

Jung, Ha-Nie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the identity of the Korean diaspora in the Mexican migration narrative is embodied. In the early 20th century, many Koreans, who heard advertisements and rumors that they could make a lot of money in a good environment, moved to Mexican farms. However, unlike the advertisement, Mexico was a hot field and was not a civilized country, so even though they were contracted workers, they treated them like slaves. The three works to be discussed in this paper, "Beauty under the Moon"(1911), *To Catch the Cloud*(1935) by Lee Hae-jo, and *Black Flower*(2004) by Kim Young-ha, focus on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who moved to Mexico. These novel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deal with not only hard lives on Mexican farms but also secondary diaspora outside the farm.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publication year of these novels shows the difference of the embodied content and the theme.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se works, focusing on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diaspora and the solidarity in Mexico. In Mexico, they form solidarity with the underprivileged, such as Chinese and Mayans, and solidarity in the Korean community, establishing a "survival as Koreans" and cultural identity.

Key words: Mexican migrant narrative, diaspora, identity, cultural identity, sympathy, solidarity, "Beauty under the Moon", *To Catch the Cloud*, *Black Flower*

투 고 일: 2021년 5월 30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